

##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5. 2. 17.(월) ~ 2. 20.(목)
2. 장 소 : 서면심의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2	민조홍, 문혜성, 장원경, 민병원, 안등용, 배성아, 반지민, 서유리, 이명경, 한은주, 김유환, 한유경	안동인(간사)

4. 안 건
  - 제1호의안 :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5. 안건심의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다.


규정	개정 내용
학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정해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사전예고’를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안’ 제출이 요구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학, 학부, 학과, 전공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제5조 별표1)</li> </ul>

- (1) 민조홍 평의원은 수도권대학 중 우리 학교 정시통합선발(전공자율선택제) 인원이 매우 많고, 정시통합선발생 대부분이 특정 학과로 쏠리면서 학사 진행에 큰 혼란이 있고 학생들도 2학년부터 학과로 진학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전공자율선택제 시행과 100% 기숙사 제공, 다수 장학금 지급으로 입시에서 학교 선호도가 높아졌으나 장학금과 기숙사 제공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한다.
- (2) 민조홍 평의원은 대학혁신위원회에서 대규모 전공자율선택제 시행으로 받는 100~130억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전공자율선택제를 위해 규모가 축소된 단과대학(인문, 사회, 자연, 사범)의 질적 성장을 위해 투입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 (3) 민조홍 평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전공자율선택제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지원금을 정원이 줄어든 단과대학에 우선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4) 반지민 평의원은 본교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단과대학이 존재하는 만큼 각 단과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과 학생 배정이 필요하나, 전공자율선택제로 학생들이 특정 학과로 몰리면서 소수 학과, 순수/예술계열 학과에 대한 대책 등이 부재하였음을 언급하며,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과 전공자율선택제로 규모가 축소된 소수 학과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공자율선택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2025년 2월 21일

간 사 안 동 인

안동인 

※ 대학평의원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의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25.1.1.자로 제9기 대학평의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이전에 서면심의를 진행하였기에 간사가 서명 날인함.